

## 2023.09.04(월)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09-04 오전 4:19

수정한 날짜: 2023-09-04 오전 11:37

### 2023.09.04(월) 증권사리포트

씨에스윈드

Orsted 주가 급락으로 확인된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난

[\[출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

글로벌 해상풍력 1위 개발업체인 Orsted가 미국 해상풍력 관련 총 23억달러 손상을 예고하면서 주가 25% 급락 이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기자재 관련업체들도 주가 급락한 상황

Orsted의 손상 예상 원인은 1) 하부구조물 등 해상풍력 기자재 조달 늦어져 단지 건설 지연(7억달러), 2) 미국 내 기자재 조달 관련 보너스 크레딧 협상 지연(9억달러), 3) 이자율 상승 관련 예상 손상(7억달러)

손상의 주원인은 기자재 공급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인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하기 때문

하부구조물, 타워 등 기자재 적기 공급이 글로벌 해상풍력 확대에 키 포인트인 것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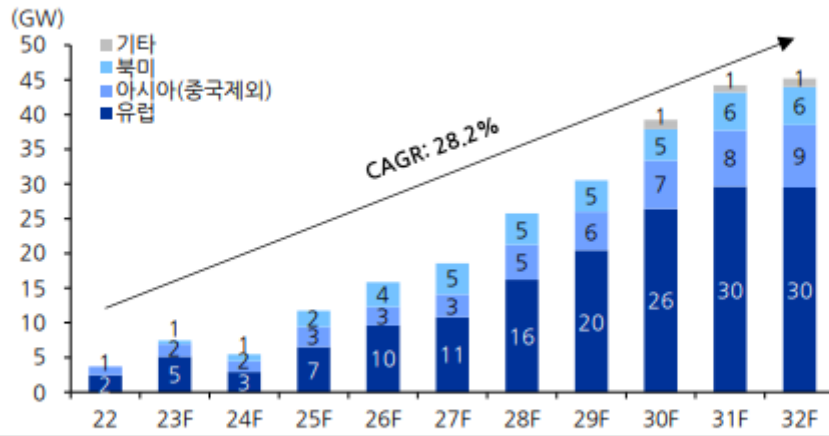
GWEC, 매크로 상황 우호적이지 않지만, 중국 제외 해상풍력 향후 10년간 연평균 28% 고성장 예상

씨에스윈드, 포르투갈, 베트남에 해상 타워 공장 증설, 하부구조물 업체 인수는 긍정적인 결정이라 판단

12월 결산(십억원)	2021A	2022A	2023E	2024E
매출액	1,195.0	1,374.9	1,603.3	2,435.0
영업이익	101.1	42.1	132.9	288.9
세전손익	90.7	1.7	89.5	257.3
당기순이익	64.7	(9.8)	72.2	200.8
EPS(원)	1,570	(23)	1,711	4,761
증감률(%)	85.7	적전	흑전	178.3
PER(배)	41.9	n/a	37.1	13.3
ROE(%)	10.1	(0.1)	8.0	19.8
PBR(배)	3.1	3.3	2.9	2.4
EV/EBITDA(배)	21.1	29.6	14.7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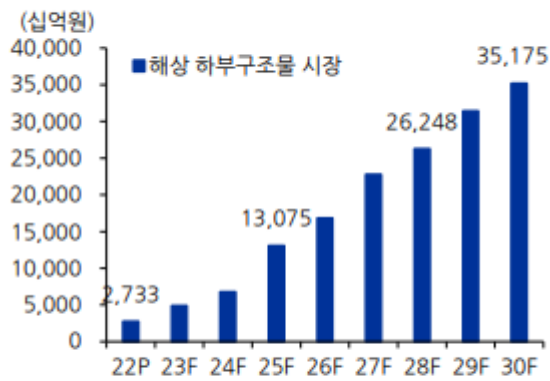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 중국 제외 해상풍력 시장 연평균 성장률 28.2%(2022~2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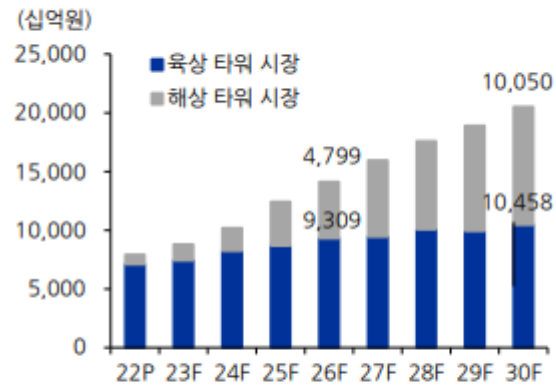
자료: GWEC(Global Offshore Wind Report 2023), 유진투자증권

도표 4.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 전망(중국제외)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5. 풍력 타워(육상, 해상)시장 전망(중국제외)



자료: 유진투자증권



---

에스엘

LED램프와 전장 아이템 수주 증가

[\[출처\] IBK투자증권 이상현 애널리스트](#)

최근 2분기 실적도 기대이상

최근 2분기 연결실적은 매출액 1조2,544억원(+23.5%), 영업이익 1,339억원(+70.8%), 영업이익률 10.7%(+3.0%p yoy)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31% 상회했다. 제품별로는 램프/전동화/기타 각각 +26%/+24%/-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한국/북미/중국/유럽/남미 각각 +24%/+28%/+36%/+35%/+32%를 기록했고, 인도만 +1%로 강보합을 보였다. 고객사들의 공급망 개선에 따른 가동률 증가, 환율과 믹스개선 효과, 에스엘미러텍 편입효과 등에 기인한다. 에스엘미러텍은 2022년 6월 지분 51%를 취득하여 연결로 편입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6월 한달치)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242억원, 22억원이었고, 2023년 상반기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767억원, 117억원을 기록했다.

LED램프의 구조적 성장과 새로운 전장아이템 증가로 신규 수주 증가

신규수주는 23년 상반기말 기준 8,522억원으로 올 목표치의 64%를 달성한 상태다. 현대차그룹, 지엠, 기타(스텔란티스 등)으로 수주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LED램프의 구조적 성장이 눈에 띈다. 자동차 램프는 할로겐부터 HID, 그리고 LED 순으로 진화해오고 있다. 자동차 부분변경(F/L)이나 풀체인지 모델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램프쪽이기 때문에 LED 광원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변화를 주도해왔다. 내연기관 모델에서도 채택률이 높아졌지만 전기차로 갈수록 전력 효율성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더욱 LED 광원 채택률이 높아지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EV6 프로젝션타입 LED 헤드램프의 경우 고급화, 고기능화 등이 포함되며 소나타 프로젝션타입 LED 헤드램프나 소나타 MFR타입 헤드램프 대비 2배 내외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센터램프, 그릴램프 등 LED로 표현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IT와 연계된 스마트램프 등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장분야에서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BMS는 고전압 리튬배터리의 전압/전류 내부상태를 실시간 감시해주는 시스템으로 현대차 한국공장에 2022년부터 3년간 총 627억원(연 209억원) 공급중이며, 기아로는 2024년 6월부터 2030년말까지 2,025억원(연 37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비용 반영 있겠지만 양호한 성장 전망

하반기는 임단협 등에 따른 비용 반영이 있기 때문에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안분하지 않고 하반기에 반영하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년동기 베이스가 낮아 증가추세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측은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시장 기대치는 매출액 4조 9,962억원(+20% yoy), 영업이익 3,948억원(+99% yoy), 영업이익률 7.9%(+3.2%p yoy), 순이익 3,124억원(+88% yoy)이다. 올해 컨센서스 기준 PER 5.5배, PBR 0.85배 수준이다(자동차부품업종 PER 10.9배, PBR 0.89배)

(단위:십억원배)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1,599	2,262	2,505	3,001	4,175
영업이익	5	44	93	111	198
세전이익	30	82	89	155	216
지배주주순이익	25	86	66	96	155
EPS(원)	743	1,921	1,362	2,001	3,290
증가율(%)	-74.1	158.7	-29.1	46.9	64.4
영업이익률(%)	0.3	1.9	3.7	3.7	4.7
순이익률(%)	1.6	3.8	2.6	3.2	4.0
ROE(%)	2.5	7.3	4.7	6.6	9.9
PER	26.9	9.4	11.9	15.6	7.0
PBR	0.7	0.6	0.6	1.0	0.7
EV/EBITDA	11.0	7.4	4.5	7.0	3.9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 그림 2. 자동차 헤드램프 시장지위

No	Company	Volume (1,000 Unit)	Ratio (%)	Memo
1	Koito 	12,569	16%	
2	Valeo 	11,258	15%	
3	Marelli 	9,768	13%	
4	Stanley 	6,481	8%	
5	FORVIA 	6,012	8%	Incl. HELLA
6	SL 	5,303	7%	
7	Others	25,237	33%	

자료: 에스엘, IBK투자증권



---

롯데렌탈

쏘카의 지분 17.91% 인수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쏘카의 지분 17.91% 인수

롯데렌탈이 2023년 8월 31일 장 종료 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통하여 SK(주)가 보유한 쏘카의 주식 587.2만주(지분 17.91%) 전부를 총 1,321억원~1,462억원 사이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매수는 2차례에 나눠 진행되는데, 1차 거래는 2023년 9월 14일까지 주식의 절반인 293.6만주를 총 661억원(주당 22,500원)에 인수하고, 2차 거래는 2024년 9월 13일까지 나머지 293.6만주를 총 661억원~802억원(주당 22,500원~27,300원, 직전 3개월 평균)에 인수한다. 전체 인수대금을 기준으로 주당 가격은 22,500원~24,900원이고, 이는 쏘카의 현재 주가인 16,110원 대비 40%~55%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는 셈이다.

인수 후 총 지분율 32.91%로 2대 주주 등극

롯데렌탈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쏘카의 주식 386.6만주, 지분 11.7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22일 다른 주주인 에스오피오엔지의 풋옵션 행사로 105.2만주(지분율 3.21%, 취득금액 475억원, 주당 금액 45,172원, 거래 완료일은 9월 22일)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491.8만주, 지분 14.9995%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번 SK(주)와의 계약이 진행된다면 9월 14일 이후 785.4만주(지분율 23.95%), 그리고 2024년 9월 13일 이후에는 총 1,079.0만주(지분율 32.91%)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기존 최대주주인 에스오큐알아이(주식수 622.1만주, 지분율 18.97%)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35.43%에 이어 완전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지분율 차이 2.5%). 롯데렌탈은 추가적으로 에스오큐알아이/에스오피오엔지와 풋옵션 계약으로 58.7만주(지분율 1.79%, 행사가격45,172원)를 취득하게 된다면, 지분율은 34.7%까지 상승할 수 있다.

쏘카와의 시너지를 목표 중이나, 쏘카의 의사가 관건

롯데렌탈은 쏘카의 지분 매수가 그룹 차원에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고, 향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롯데렌탈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렌탈은 렌터카 시장의 1위 사업자이나, 플랫폼 역량은 다소 부족하다는 자체 판단이었다. 향후 쏘카와의 협업을 통해 1) 젊은 층 유입 고객을 렌탈 고객으로 전환시키고, 2) 쏘카의 플랫폼 기술을 단기렌탈에 접목하며, 3) 쏘카의 노하우를 비용절감에 활용하고, 4) 궁극적으로 롯데렌탈의 풀라인업과 쏘카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룹 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고객 충성도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롯데렌탈의 목표는 쏘카의 우호적인 협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쏘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하고, 이는 주총 결정이 필요한 바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향후주가는 롯데렌탈-쏘카의 협업 여부에 따라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협업이 잘 진행된다면 장기 가치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반대라면 당분간 변동성을 보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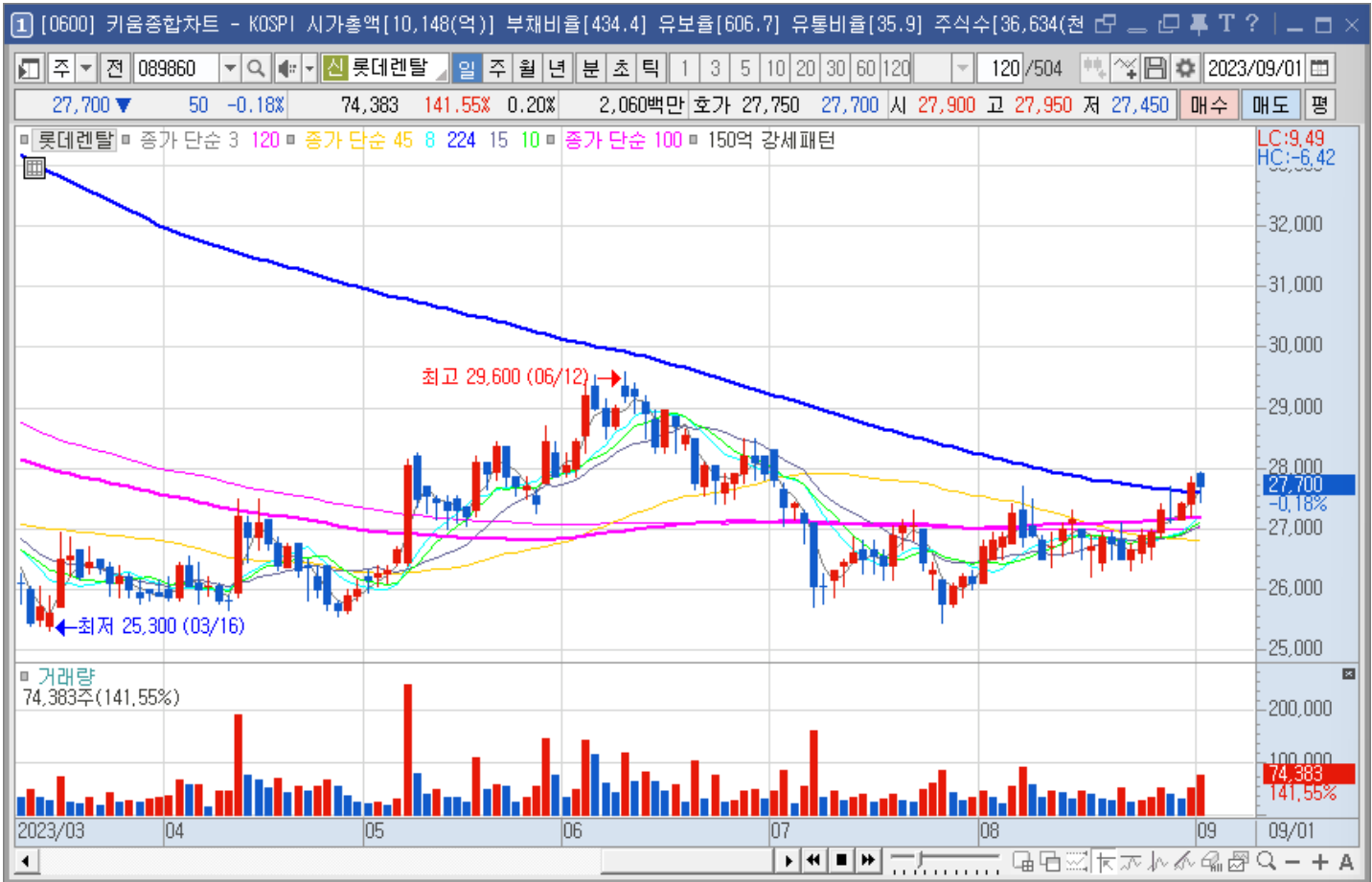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2,051	2,252	2,423	2,739
영업이익	126	160	245	308
세전이익	39	58	150	138
순이익	32	46	119	94
EPS	1,077	1,562	3,685	2,577
증감율	0.5	45.0	135.9	(30.1)
PER	0.0	0.0	10.3	10.7
PBR	0.0	0.0	1.1	0.8
EV/EBITDA	0.0	0.0	4.2	4.0
ROE	4.8	6.5	9.7	7.3
BPS	22,490	23,931	33,557	35,333
DPS	180	300	900	900







세코닉스  
 전장 업체로 변신  
[\[출처\] IBK투자증권 김운호 애널리스트](#)

안정적인 매출액, 아쉬운 수익성

세코닉스의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이전 전망치와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모바일은 소폭 부진, 차량용 부품은 예상 보다 높은 규모였다. 모바일 부진은 고객 물량 부진에 따른 영향이고, 차량용 매출액은 공급 모델 수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하반기 분기별 매출액은 2분기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은 감소세, 전장 부품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은 상반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렌즈와 램프로 전장부품업체로 변신 완료

세코닉스의 경쟁력은 광학 기술이다. 이를 발판으로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램프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제품믹스 개선, 고객 확대, 신제품 등으로 안정적 성장 발판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 AR/VR 및 자동차용 각종 렌즈와 자율 주행 관련 제품으로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2023년 모바일 카메라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전장 관련 부품 매출액이 80%를 상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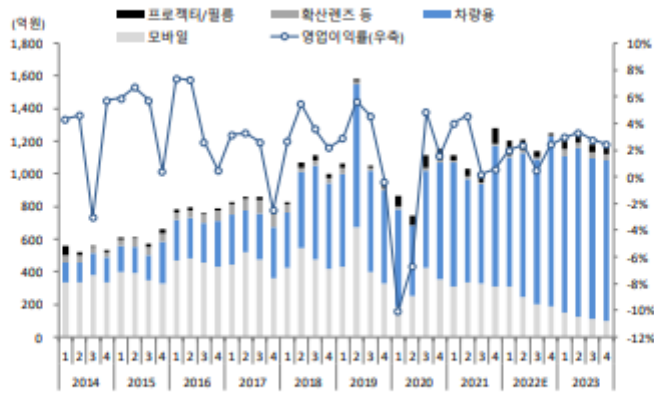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제시, 목표주가 11,000원 유지

세코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 이는 2023년부터 성장세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차 메이커와 글로벌 부품업체들의 안정적 파트너로서의 입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자율 주행 시장으로도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카메라 모듈의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자동차, IoT를 이용한 각종 도구에 활용될 정도로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국내 카메라 렌즈 업체 중에서 모바일과 자동차에서 가장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지분 승계 마무리로 주가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목표주가는 11,000원을 유지한다.

(단위: 억원 배)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4,427	4,796	4,783	4,806	5,598
영업이익	108	62	138	170	238
세전이익	67	-7	148	164	217
지배주주순이익	41	-22	117	131	174
EPS(원)	285	-146	788	888	1,174
증가율(%)	-110.6	-151.3	-638.6	12.7	32.2
영업이익률(%)	2.4	1.3	2.9	3.5	4.3
순이익률(%)	0.9	-0.5	2.4	2.7	3.1
ROE(%)	4.6	-2.1	9.9	10.0	11.9
PER	31.7	-36.7	9.5	8.5	6.4
PBR	1.4	0.7	0.9	0.8	0.7
EV/EBITDA	5.5	4.1	4.2	3.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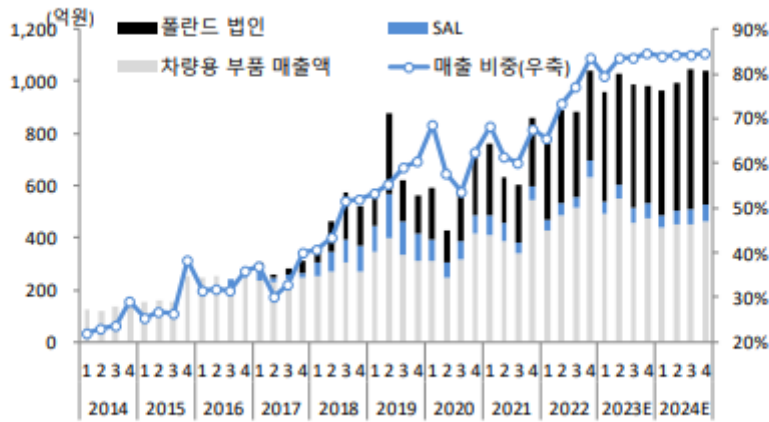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제품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세코닉스,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차량용 부품 매출액 및 매출 비중 추이 전망



자료: 세코닉스,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NEW

드라마와 영화로 밀수 있다

[\[출처\] DS투자증권 장지혜 애널리스트](#)

2023년 상반기: 영화 부진했으나 드라마 <무빙>, <닥터 차정숙>의 높은 Hit Ratio로 콘텐츠 제작능력 증명

NEW의 23년 상반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549억원, 매출총이익 77억원(GPM 14%), 영업적자 -65억원(OPM -12%)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1Q <슬램덩크> 배급 수익과 전년도 투자/배급 영화의 부가판매 수익 기여가 있었지만 상반기 제작/투자/배급 영화 <소울메이트>(3월), <귀공자>(6월)의 흥행 실패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자회사 스튜디오앤뉴의 드라마 제작 수익은 견조했다. 상반기 제작 수익을 인식한 드라마는 <무빙>(Disney+), <닥터 차정숙>(JTBC/Netflix), <화인가 스캔들>(Disney+)이었다. <무빙>은 500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수익을 이미 전년도 대부분 인식했기 때문에 23년 실적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다만 무빙이 디즈니플러스 아태지역 TV부문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며 차기작품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닥터 차정숙은 국내 최고 시청률 18.5%를 기록했으며 넷플릭스 비영어권 TV부문 2위까지 올랐다.

2023년 하반기: 영화 <밀수>까지 흥행하며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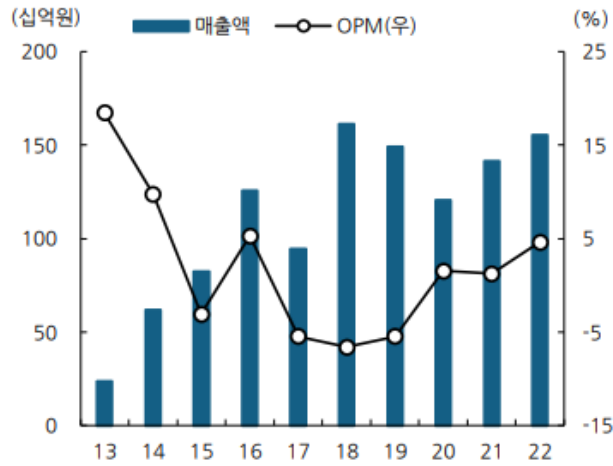
3분기는 영화 <밀수>(7월)가 누적관객수 500만명을 넘기며 예상 손익분기점(400만명)을 상회해 실적 기여가 기대된다. 밀수는 23년 8월 말 기준 범죄도시3 다음으로 올해 유일하게 관객 수 500만명을 넘은 한국 영화로 의미가 있다. 스튜디오앤뉴는 하반기 <화인가 스캔들>의 남은 진행률에 따른 제작수익 인식과 현재 제작 중인 <사랑한다고 말해줘>(ENA)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연내 수익 인식이 기대된다. 두 작품을 포함하면 스튜디오앤뉴의 23년 연간 매출액은 600억원 내외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한다. 이익은 제작 영화의 부진으로 전년비 감소할 전망이나 <무빙>과 같은 대작 없이도 최근 3년 연속 600~700억원 규모의 꾸준한 제작 매출을 시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이후에도 <해시의 신루>, <굿보이> 등 라인업이 예정돼 있고 올해 흥행작품을 바탕으로 글로벌 OTT 및 국내 방송 채널과 보다 우호적인 계약조건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NEW의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원으로 자회사 스튜디오앤뉴의 지분 가치(Post Value 2천억원\*40.7%=814억원)를 제외하면 영화 사업가치는 1,200억원 수준이다. 제작 자회사의 경쟁력 확대와 영화 흥행작품 증가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참고로 NEW는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21년과 23년에 걸쳐 총 4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161	149	121	142	156
영업이익	-11	-8	2	2	7
영업이익률(%)	-6.6	-5.5	1.5	1.2	4.6
세전이익	-16	-11	-3	-29	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4	-9	-6	-22	-12
EPS(원)	-497	-309	-199	-789	-440
증감률(%)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ROE(%)	-11.3	-7.5	-5.1	-18.8	-9.9
PER (배)	-8.8	-12.9	-37.8	-18.2	-18.5
PBR (배)	1.0	1.0	2.0	3.1	1.9
EV/EBITDA (배)	-16.0	-63.8	43.7	81.4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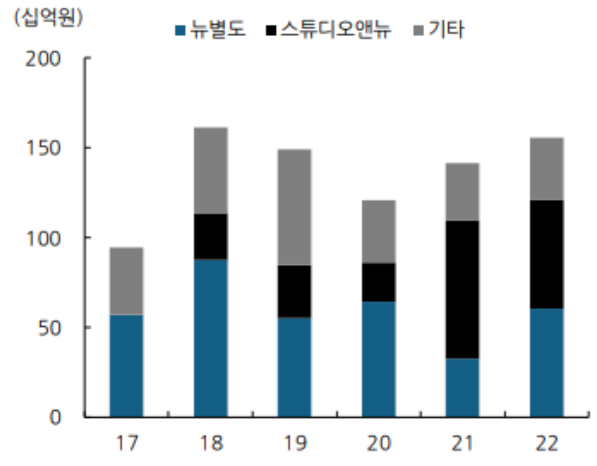
자료: NEW,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그림1 NEW 연결 실적 추이



자료: NEW,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2 NEW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



자료: NEW,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한화시스템

하반기 실적 개선과 신사업 모멘텀 기대

[\[출처\] 키움증권 이한결 애널리스트](#)

2분기 영업이익 259억원 달성하며 시장 기대치 상회

2분기 매출액 6,107억원(yoy +19.6%), 영업이익 259억원(yoy +57.9%, OPM 4.2%)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다. 방산 부문은 매출액 4,481억원(yoy +17.1%), 영업이익 282억원(yoy -8.7%, OPM 6.3%)를 기록하였다. 군 위성통신체계-II, TICN 4차 양산 매출이 반영되며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위성 사업 관련 투자 비용이 증가하며 이익은 감소하였다. ICT 부문은 매출액 1,624억원(yoy +27.3%), 영업이익 110억원(yoy +1,000%, OPM 6.8%)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실적을 달성하였다. 방산 계열사 통합으로 인한 캡티브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정상화에 힘입어 이익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신사업 부문에서는 H-foundation과 자회사에서 약 102억원, 한화 인텔리전스에서 약 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영업외에서 오버에어 등 투자회사의 지분법손실 및 한화오션 파생상품 평가이익(1,175억원)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 747억원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하였다.

하반기 다양한 신사업 모멘텀 발생 전망

2023년 매출액은 2조 4,080억원(yoy +10.1%), 영업이익 740억원(yoy +207.9%, OPM 3.1%)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반기에도 신사업 관련 진행 상황에 따라 투자 비용에 대한 변동성이 존재 하는 상황이다. 다만, 방산 부문에서 양산 사업 진행과 폴란드형 주요 무기 체계의 부품 수출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과 계열사 관련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ICT 부문의 정상화가 실적 개선 흐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말로 갈수록 다양한 신사업 관련 모멘텀이 발생할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AM 신사업의 경우 오버에어에서 시제기를 조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올해 말 정도에는 시제기 조립을 마치고 시범 비행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궤도 위성 사업 부문에서는 올해 7월에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하반기에 나올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저궤도 위성 통신 체계는 선제적으로 군사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6,000원은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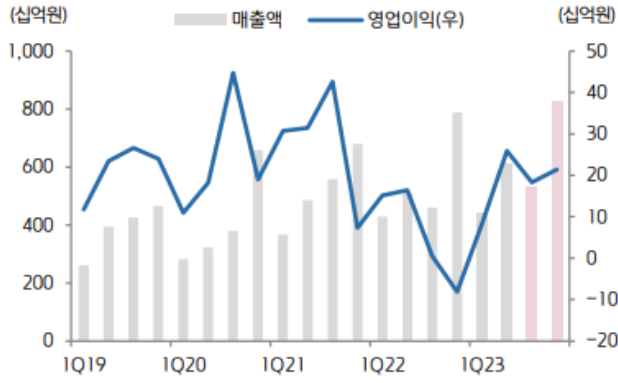
###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089.5	2,188.0	2,408.0	2,590.9
영업이익	112.0	24.0	74.0	110.0
EBITDA	208.0	129.0	196.6	225.7
세전이익	128.1	-57.0	349.0	82.7
순이익	97.9	-80.8	271.0	60.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8.3	-76.6	277.2	67.0
EPS(원)	630	-405	1,467	355
증감률(% YoY)	-16.9	적전	흑전	-75.8
PER(배)	25.4	N/A	9.1	37.8
PBR(배)	1.36	1.00	1.14	1.13
EV/EBITDA(배)	7.4	7.5	9.7	8.8
영업이익률(%)	5.4	1.1	3.1	4.2
ROE(%)	6.0	-3.6	13.1	3.0
순차입금비율(%)	-67.2	-51.6	-28.2	-24.8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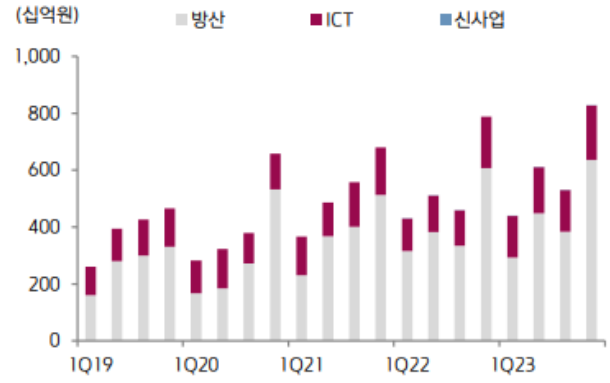


### 한화시스템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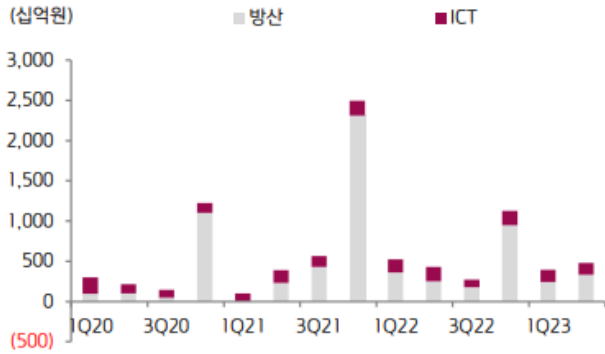
자료: 한화시스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한화시스템 부문별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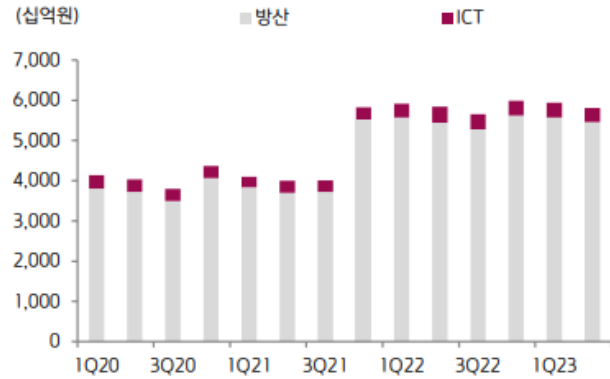
자료: 한화시스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한화시스템 부문별 신규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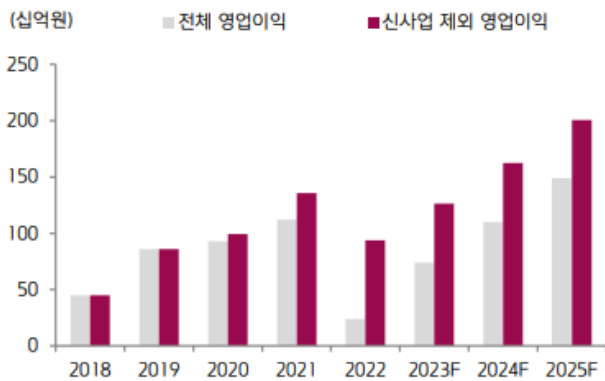
자료: 한화시스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한화시스템 부문별 수주 잔고 추이



자료: 한화시스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신사업 제외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한화시스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신사업 투자 히스토리

	UAM	위성	디지털 플랫폼	기타
2Q23	-	60억원	-	-
1Q23	-	-	74억원	-
2022	646억원	3,993억원	2,524억원	-
2021	351억원	542억원	786억원	187억원

자료: 한화시스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유한양행

렉라자 암질심위원회 통과로 1차 급여 등재 기대감 확대

[\[출처\] IBK투자증권 이선경 애널리스트](#)

렉라자 1차 급여 위한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8월 30일 "23년 제 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 심의 대상은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 화의자의 로비큐아, 머크의 얼비투스 등 6개 약제 대상이었으며 다케다의 엑스키비티 및 안센의 리브리반트를 제외하고 4개 약제에 대해서 급여 기준이 설정

참고로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21년 1월) 2차 이상 치료제로 승인 → (21년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설정" → (21년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 평가 → (21년 6월) 약가 협상 타결 → (21년 7월) 급여 등재 프로세스를 거쳐 6개월 만에 급여 등재에 성공

이번 1차 급여 등재는 이전 일정을 고려,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 12월 약가 협상 결과 발표 → 24월 1월 급여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반기, 유한양행이 기대되는 이유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경쟁자인 타그리소가 Chemo 병용요법으로 지난 8월 16일 FDA 혁신 치료제로 지정 받고, 해당 임상 (FLAURA2 Study)결과가 9월 9일~12일 개최되는 세계폐암학회(WCLC 2023)에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수한 결과발표가 기대. 이로 인해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맵 병용요법에 대해 1)타그리소+Chemo 결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결과 발표를 할 수 있을지 2)시장에 선진입한 타그리소의 브랜드 파워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마케팅 파워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가 존재

하지만 Chemo 병용요법은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독성과 mPFS와 mOS의 상관성 확인이 중요하며, 암환자들에게 다양한 옵션 제공 및 1차 치료 실패 후 옵션을 고려했을 때에도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맵 병용요법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또한 IRA 약가 인하로 악화되는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신규 포트폴리오 강화 측면에서도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맵 시장 진입 성공이 Janssen에게 중요한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도 기대 가능. 따라서 10월 20일~24일 개최되는 ESMO에서의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맵 병용 결과 발표에 주목

